

어등산 개발 대법원까지 가야 하나

광주시, 행정소송 1심 이어 2심 승소...서진건설 측 상고 검토 '꿀잼도시' 인프라 조성 지연 우려...시-사업자간 대화 나서야

2005년 계획 수립 후 17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들고 돌아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에선 인구 150만 도시에 복합쇼핑몰은 커녕 특급호텔 한 곳 없고, '노잼 도시'를 벗어날 관광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법원 상고 시엔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여기에 서진건설측이 어등산 관광단지 신규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선 광주 공동체 발전이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광주시-사업자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법적 소송 중단과 '꿀잼 도시'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는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원을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

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했으나 서진 측이 총사업비 범위에 대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협약 이행보증금에 대한 입장 차도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시장은 공모지침 중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진 측은 당초수표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사업 수행 의지를 보여주고자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약서에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돼 있으나 불이익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요건을 해석해야 하고 입증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진건설도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응적으로 동참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측은 즉각 반발하고, 대법원 상고에 예고하고 나섰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아직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대법원

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측은 또 "엄연히 사업자가 존재하고 소송 중인 사업지에 대해 복합쇼핑몰 개발 등을 거론하며 사업 흔들기에 나선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광주시에서 대화나 협의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나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총 사업비 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광주시는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호텔 건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억원을 요구한 반면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인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억원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으며, 서진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을 선언한 신세계그룹이 어등산 관광단지 내에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서진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 부지 등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돈되는 골프장'만 짓고 나머지 관광시설 개발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영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는 2005년부터 광산구 운수동 일원 어등산 내 군부대 포 사격장 부지 등 41만7500㎡에 휴양시설과 호텔, 상가 등을 조성하는 관광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현재 어등산 관광단지는 돈 되는 골프장만 조성된 채 나머지 관광 시설 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김치가 비만 개선한다”

최학중 연구팀, 항비만 원리 규명...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김치가 장내 유익 미생물 증식을 유도해 비만과 신경염증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 최학중 박사 연구팀은 최근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국제 학술지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Food Research International)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김치의 항비만 작용 원리를 규명하려고 동물 모델의 생김치 섭취에 따른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를 관찰했다.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생쥐에 일주일 6일씩 10주 동안 하루 120mg 배추김치를 경구 투여한 결과 체지방을 31.8% 줄이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 비만에 의한 신경 염증,

뇌혈관 장벽 손상이 개선되고 장내 유익 미생물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Akkermansia muciniphila)가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김치연구소는 또 김치가 장내 유익 미생물 증식을 유도해 비만과 비만에 의한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작용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장해준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김치가 현대인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연구 결과를 널리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경제성장률 광주 4.0%·전남 2.7%

전국 평균 밀돌아...개인소득 각각 2247만원·2088만원

지난해 지역 경제성장률은 광주 4.0%·전남 2.7%로, 전국 평균 성장률(4.2%)을 밀돌았다.

가계 구매력을 나타내는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 광주는 전국 4번째로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은 밀돌았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은 광주 4.0%·전남 2.7%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지역 경제성장률(광주 -0.2%·전남 0.5%)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0.6%에서 지난해 4.2%로 늘었으며, 지난해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7.2%), 충북(6.4%), 인천(6.0%)의 성장률이 특히 높았다.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076조원으로, 전년대비 132조원(6.8%) 증가했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52.7%였다.

광주 지역내총생산은 43조5000억원, 전남은 88조3000억원으로, 각각 2.1%·4.3% 비중을 차

지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은 1년 전보다 광주는 8.0%, 전남은 6.6% 증가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 성장률(6.9%)을 웃돌고, 전남은 이를 밀돌았다.

특히 전남 건설업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14.3% 감소하며 전국 평균 증감률(-2.7%)을 크게 웃돌고 제주(-18.9%)에 이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가계 등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인당 개인소득은 광주 2247만2000원·전남 2088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1%·5.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526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서울은 2017년 울산의 1위 자리를 가져온 뒤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2위 울산(2517만원), 3위는 대전(2273만원), 4위는 광주(2247만원), 5위는 세종(2206만원) 등 순이었다. 전남은 평균을 밀돌며 5번째에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 → 권고'

당정 협의서 보고...“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은 의무 유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당정이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연 협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

두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 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정부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 묻는 말에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사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지분, 땅, 삽니다
맹지안삼. 010-9582-7400

급매물건 삽니다
경매직전 물건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신행안내
12월 31일(토)
▲ K시선역회 12월 31일(토) 강령경로대의 '정동전해문지'와 '대관령전해문지'는 안산문화재단 '해파랑길36, 37구 간호대부재길(선덕·추암면호포대부위) 순회비:10만원(도시·정신·화성·가림문화재단·081338-0111)을(다)미아어린엔진스틱,아벌호수-저녁발발-영주-계곡길11:00' 동아별원11:05'뫼데백화점11:10'광주역11:15'문예후문11:25'대연주차장11:30'대음과래'회정01077946920'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동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지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영 222-9054 · 중정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동선 673-6836 · 송학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천 376-7153 · 지평 376-6511 · 동평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문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담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선 944-0444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